

최근 사진의 경향은 서사(narrative)를 지향한다. 즉 스토리텔링이라고 하는 이야기체의 모습으로 꾸며진다. 스토리텔링이 급격히 사진의 주요 요소로 등장하는 것은 사진의 표현 방법이 이전과 달라졌음을 의미한다. 이유 중의 하나는 다양한 이야기들이 흘러나오는 일상성의 강조라고 할 수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참과 거짓, 실재와 가상이 혼재한 팩션(faction)의 모습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이전의 사진들에서도 이런 문제들은 다뤄졌고 또한 일상이라는 장소성은 사진이 취해진 장소가 일상이기 때문에 그리 특별하다고는 할 수는 없겠으나 이전의 사진들이 얼마만큼 사소한 일상의 문제들을 미학과 예술의 컨셉으로 끌어올렸는지는 과거를 돌아보면 알 수 있다. 스냅사진 정도로 혹은 스냅사진을 일상적 풍경으로 판단했으니까.

일차적으로 일상의 문제는 팩션의 문제이다. 현대사진이 서사에 강한 드라이브를 넣고 있는 것도 일상성 속에 내재한 다양한 팩션의 요소들 때문이다. 팩션은 말 그대로 팩트(fact, 사실)와 픽션(fiction, 허구)을 합친 조합이다. 가상실재, 가공현실 혹은 판타지적 실재를 의미한다. 사실이 분명한데 허구적으로 감각되거나, 반대로 분명히 허구인데 실재로 감각되는 일체의 시지각적 요소(재현)들을 말한다. 우리의 일상에는 만연한 팩션의 모습들이 있다. 거짓말 같은 이야기, 진짜 같은 가짜들, 참인데도 일상적으로 환영, 환각의 모습으로 지각되는 것에 주목하고, 또한 시공을 초월하는 스토리텔링들, 즉 공간과 감각을 크로스-오버하는 잡다한 사건과 사고들을 서사화 하는 것이 현대사진의 주요 모습이자 주요 창작적 방법론이다.

영화에서는 대표적으로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의 영화 <펄프픽션>(1994)이 옴니버스 형식으로 팩션을 주무른 영화로 유명하다. 펄프픽션이란 말은 원래 1930년대부터 1950년대까지 뉴욕 문화에 나타난 통속 소설류의 잡지였다. 값싼 목재펄프 종이에 인쇄되어 간행되던 통속 소설의 모습이었으며 온갖 잡다한 탐험, 공포, 로맨스, SF, 탐정, 서부극 등의 이야기가 뒤섞인 옴니버스 형식이였다. 잡지라고 하기엔 가판신문이었고, 신문이라고 하기엔 삼류만화였고, 만화라고 하기엔 통속 소설이였다. 내용들도 공포라고 하기엔 한 순간 로맨스였고, 로맨스라고 하기엔 한 순간 SF, 탐정극, 서부극이였다. 실재 사건에서 가상 SF까지 한 묶음으로 엮어진 감각적 팩션, 서사적 옴니버스가 그 시대 문화적 아이콘으로서 펄프픽션이였다.

제이안의 사진이 그런 모습이다. 현대적 일상 안에서 시간, 공간, 감각을 크로스-오버(cross-over)한다. 또한 지금까지 두 개의 공간 혹은 그 이상의 시간과 공간을 문화적 파편으로서 조합하는 옴니버스 형식의 서사적 펄프픽션(pulpfiction)을 진행하며, 이것들이 하나의 팩션의 형식으로 스토리텔링화 한다. 우연과 즉흥, 그리고 유희적 감각으로부터 출몰하는 모습이지만 잘 짜여진, 철저히 구축된 시나리오이며, 또한 크로스 오버되는 두 개의 공간성, 시간성으로부터 상품, 광고, 의상, 포즈, 장식, 스타일들이 유사성으로 등장하지만 이미 각본화된 미장센(mise-en-scene)의 모습이다. 사진 속 오브제, 모델들은 주체이면서 동시에 객체이고, 행위자이면서 동시에 관찰자의 역할이다. 그렇기 때문에 닳았으나 같다고 말할 수 없고, 다르지만 다르다고 말할 수 없는 낮익음과 기이함의 팩션, 즉 펄프픽션적인유사와 유비의 연기자(role player)들이다.

때문에 제이안의 사진적 형식들은 영화 '펄프픽션'과 크게 다르지 않다. 또한 작가가 사진 속에 숨긴 스토리텔링도 영화감독 쿠엔틴 타란티노와 크게 다르지 않다. 팩션과 펄프픽션은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대중문화의 모습이자 현대성의 코드이다. 또 끊임없이 일상으로부터 출몰하는 감각적 욕망, 서사적 스토리텔링이다. 제이안의 사진에서 가장 눈여겨볼 것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팩션과 펄프픽션의 공통성은 일상으로부터 일어나는 '무슨 일'이다. 즉 일+상이란 매일 일어나는 일, 잡다한 일이 중요하다. 그것이 교차된 삶이다. 섞여진 삶이다. 쿠엔틴 타란티노의 <펄프픽션>이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그것이다. 대단한 일이 아닌 소소한 일, 하나의 일이 아닌 잡다한 일이다.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하고 부지기수로 일어나는 잡다한 일의 유니버스이다. 일상의 삶은 사소한 유니버스들이다. 참과 거짓이 뒤섞이고 난무한 스토리텔링 무대이다. 제이안의 사진은 서울과 뉴욕 혹은 서울/뉴욕이라는 시공을 초월하여 일어나는 사소한 삶의 형상들이자 잡다한 일상의 파편들이다. 그것들이 유니버스 형식으로 꾸준히 주려 한다.

그러나 제이안의 사진은 역시 로망이다. 잃어버린 것을 되찾으려는, 하나로 연결하려는 삶의 파편에 대한 로망이다. 단상들은 파편적이면서도 조합되기를 기다리는 것들이다. 그것은 잃어버린 것, 혹은 두 개로 떨어져 나간 것을 조합하려는 로망의 모습이다. 두 개의 공간으로부터 부단히 팩션에 주목하고 펄프픽션적인 이미지를 꿈꾸는 것은 과거와 현재의 실존적 삶으로부터, 혹은 이전 사진과 지금 사진이 보여주는 모습에서 어떤 분리된 것들을 하나로 연결해보려는 로망의 유니버스를 띠고 있다. 파편은 격리된 연결된 하나이다. 제각각으로 자리한 독립된 연결이다. 서울과 뉴욕은 그에게 하나의 파편이다. 아니 큰 파편이다. 한 몸에서 떨어져 나간 파편이면서 동시에 독립된 연결이다. 제이안의 사진은 그런 로망의 유니버스이다.